

부산시, 부산항 컨테이너稅 2006년말 폐지

수출입하주 물류비절감으로 가격경쟁력 제고

부산항을 이용하는 수출입 컨테이너에 대해 부과되어 온 컨테이너 지역개발세가 2006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된다.

부산광역시와 한국무역협회에 2007년 1월1일 이후 부산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에 선적된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공식 통보했다.

컨테이너세는 부산시가 컨테이너화물수송을 위한 항만배후도로 건설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 1992년부터 15년간 1TEU당 2만원씩 징수해 왔다.

무역협회는 그동안 컨테이너세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부과되고 있으며 수출입하주의 물류비부담을 가중시켜 수출상품의 가

격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면서 이의 폐지를 정부 각부처와 부산시에 강력히 건의해 왔다.

부산시는 당초 1992년부터 2001년말까지로 되어 있던 컨테이너세 징수기간을 무역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1년말에 5년간 연장했었으나 이번에는 재연장 없이 2006년말로 종료된다.

컨테이너세는 연간 약 1,000억원(2005년기준 약 912억원)에 달해 금년말 폐지로 수출입하주의 물류비절감을 통한 수출상품 가격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치열한 아시아 허브항만 경쟁하에 부산항의 항만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물류협회, 물류혁신세미나 연 2회 실시

한국물류협회(회장 서병륜)가 2007년부터 '물류의 날'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물류전문컨설턴트 양성과정, 물류혁신특별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유균 협회부회장은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류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뿐더러 물류업계를 선도하는 협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11월 15일을 예정하고 있는 '물류의 날'은 현재 민간차원에서 진행 중이며 정부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물류사랑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11월 셋째주에 열릴 이 행사는 5km, 10km, 하프 등 3종목으로 구성, 5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신 부회장은 설명했다.

특히 신 부회장은 "그동안 국가물류정책수립에 있어 큰 역할을 해왔던 물류정책토론회는 2007년부터 물류혁신특별세미나로 탈바꿈하여 연 2회씩 개최하기로 했다"며, 정부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인 글로벌 물류강국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물류협회는 현재 매회 30명씩 배출하는 물류전문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연 2회 10개년 계획으로 실시하여 매년 60명의 물류전문가를 배출하여 총 600여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명지대학교와 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 실시되는 물류전문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우수한 강사진과 커리큘럼으로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30분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총 16주간 진행된다.